



제주도 예산 성과관리제도 부실 운영 ‘도마’

제주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 제1차 회의

고현수 의원 “목표·성과지표 다르게 설정” 비판
의원들 “예산 불용은 일 하지 않거나 홍보 부족”

제주도가 예산 성과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는 목표와 성과의 지표를 다르게 적용해 100%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현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0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성과관리제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예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결산할 때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목표(계획)와 성과(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 목표치를 임의로 변경해 목표와 성과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지표로 복지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화 지원율을 설정했는데, 2016년 달성률이 0%라는 건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그런데 2017년에는 달성률이 갑자기 100%가 됐다. 근거가 무엇이나, 예산 지원이나”고 물었다.

고 의원은 이어 “어르신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 지원 사업은 상위목표(성과지표)를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실적으로 해놓고 실적(달성률)은 예산지원실적으로 바꿔놓았다”며 “예산지원실적을 성과로 삼는 것은 예산만 지원한다면 모두 100% 달성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라며 “원칙통 지사는 앞으로 복지 예산

을 2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전혀 의미가 없다.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고 따졌다.

한영진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제주형 수놓음 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2016년 15개소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10개소만 조성해 예산의 33%가 불용처리됐는데 목표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며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역수요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도 53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는데, 굳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영희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도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사업비의 30

%,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비의 50% 등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다”며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불용되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았거나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보건복지 분야 6개 기금의 집행률이 3년 연속 5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건 기금의 성격과 방향성을 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금은 사람과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투자하고, 공모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10일 제36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열어 결산 심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지역 주요 경제지표 일제히 하락세

제주도의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 결산 심사

김경학 의원 “제도개선 통해 제주경제 재설계”

제주지역 주요 경제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 제주경제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김경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면)은 10일 열린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근 주요 경제지표를 언급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경학 의원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5.1%, 2014년 5.3%, 2015년 5.3%, 2016년 7.3%로 성장하면서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4.4%로 낮아진 데 이어 제주연구

원은 올해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4.2%로 하향 조정했다. 또 지난해까지 계속 증가세를 보이던 고용률(7월 68.2%)과 청년고용률(7월 46.7%)이 떨어졌으며, 8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5.24)와 생활물가지수(104.56)는 상승했다.

2018년 4월 기준 가계부채도 지역총생산(GRDP) 대비 81.3%인 14조2000억원에 달해 전국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도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계 빛이 제주경제의 ‘뇌관’이 될 것



김경학 의원



송영훈 의원

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얼마 전까지 제주는 기회의 땅으로 인식돼 유입인구가 급증하고, 관광과 건설도 호황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건설과 관광 둘 다 침체 국면이다. 지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회를 찾아 제주로 오신 분들이 다시 떠나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파른 성장에 따

른 피로감과 수용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각종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숙박시설만 해도 최근 몇 년 사이 대책 없이 많이 늘어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이뤄지고, 특히 자영업이 어려운 것 같다. 제주경제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허법률 제주시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자본이 들어와야 한다”며 “지역경제 안정과 미래 발전을 고려해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올해 초 제주도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로드맵과의 차이를 언급하며 재원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표성준기자



제주도의회 재정경제연구회와 제주성평등포럼이 10일 ‘재정·예산 및 성과보고서의 이해’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원인분석 없이 성과보고서 작성”

도의회 재정경제연구회·성평등포럼 전문가 토론회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재정경제연구회와 제주성평등포럼은 10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욱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예산 및 성과보고서의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결산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규명하는 절차”라며 “예산과의 괴리 여부,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측정산식이 일치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임의 수정 변경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며 “성과분석 시 성과미달성(100% 미만), 초과달성(130% 이상)한 경

우에 원인분석을 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부서는 원인분석이 없거나 부실하게 작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성인지정책센터장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제주 성인지예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정책관과 예산담당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예산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는 총괄 담당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소속 사업 담당자들도 성인지 결산서 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표성준기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제주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까지 현재 개방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 누구나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공의 정보를 개방하는 것으로, 제주시의 경우 150개 분야 263종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볼 수 있다.

공공데이터 활용빈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도별로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 2014년 200건 > 2015년 2960건 > 2016년 4385건 > 2017년 9127건 등이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5923건을 기록 중이다.

제주시는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신규 지정된 전국 공통 개방표준 데이터가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택배·배달 안내지도 제작

제주시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택배·배달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택배·배달 맞춤형 안내지도’를 무료로 제작해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택배·배달 맞춤형 안내지도’는 ‘제주시 새주소생활안내지도’ 파일을 활용해 제주시 동지역을 13개 권역으로 재편집해 170cm×90cm 규격 범위 내에서 도로구간 및 도로명, 건물번호 등 주요 정보를 표기해서 도면을 단순화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로명 주소를 활용하는 택배·배달업, 음식점, A/S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는 지금까지 700여개 업체에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업체에서는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 영업이익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현숙기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함께하는 주민자치, 나누는 행복공동체

2018 서귀포시 주민자치 & 평생학습 박람회

2018. 9. 15(토) ~ 9. 16(일) [2일간]

제주월드컵경기장 광장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제주시 창업카페 창작마루 2주년 특별 강좌

내일을 잡아라! My Job! New Job!

2018.09.12 (수) 13:30-16:30

창직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제주시 창업카페 ‘창작마루’를 2016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창업카페 ‘창작마루’는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비롯하여 창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창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창업카페 ‘창작마루’ 개소 2주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자신만의 일자리를 만드는 ‘창직’을 제주시민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작마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제주시 창업카페 창작마루 드림자리에 입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아이디어 시연회도 함께 개최합니다.

창작마루 특별강좌 “창직 특강”

- 강사: 창직을 통한 혁신적인 진로 전략
- 창직은 기존에 없는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 자신의 직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 창직은 텃밭, 정자수업전문가, 드론조종사, 활동해설사 등이 있습니다.
- 강사: 사립법인 창직학회 이점진 회장
- 대상: 일자리에 고민이 많은 청년과 정약민,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하는 중장년

창작마루 드림자리 입주업체 창업시연회

- 시연: 제주시 특산물 연구하고 있는 ‘미도공방’ 연희(여)씨는 9월 15일 제주시 소재지사에 협회하는 토코스 ‘소분’을 창작마루에서 시연합니다.
- 시연: 공평은행 활동가가 모여서 만든 ‘위드’에서는 9월 14일 활동 실예를 해내 체험을 위한 ‘위드’를(위드)를 소개하고 판매할 상품을 소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창작마루 홈페이지 http://www.jcnu.com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1070-4268-2643로 연락주시 바랍니다.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국가중요인물유산

[제주해녀업 국가중요인물유산 제1호 지정]

제주해녀, 미래유산의 길을 묻다

제11회 제주해녀축제기념 2018 제주해녀국제학술대회

201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eju Haenyeo

2018.9.18(화) 09:30-20:00

메종글래드 제주(MAISON GLAD JEJU)

주최: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JRI 제주학연구소

제11회 제주해녀축제기념 전국해녀 교류행사

2018. 9. 20(목) 15:00-20:00

메종글래드 제주(MAISON GLAD JEJU)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JRI 제주학연구소

제주학연구소

Center for Jeju studies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3층

Tel, 064-726-5623 Fax, 064-747-6140